

旅軒의 易學觀

- 河圖洛書의 이해를 중심으로 -

최 정 준*

차례

- I. 서론
- II. 하도낙서와 체용론
- III. 하도낙서와 상변론
- IV. 하도낙서와 경위표리론
- V. 결론

【국문초록】

여현은 상수역학의 주요주제인 하도와 낙서의 관계에 대해 그가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여현의 『易學圖說』을 고찰해보면 그의 독창적 정의를 알 수 있다.

여현은 하도를 체로 낙서를 용으로 구분하여 선체후용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常變과 관련해서는 ‘河圖는 偶數가 남고 奇數가 모자라며 洛書는 奇數가 남고 偶數가 모자람이 常變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旅軒은 河圖는 圓으로 10수이며 洛書는 方으로 9인 것이 經緯表裏의 뜻이라고 하였다.

상수역학에서 추출된 體用, 常變, 經緯의 개념은 그의 철학사상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 성균관대학교 강사

주제어

여현, 체용, 상변, 경위, 상수역학, 주역

I. 서론

易學에서 河圖洛書와 관련된 상수 이론은 『역학계몽』에 근거해 천지지수이론, 팔괘생성론, 시책론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천지지수 이론¹⁾은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를 河圖의 數로 보아 天數 地數라는 奇偶의 陰陽과 1,6 2,7 3,8 4,9 5,10이라는 五行의 논리가 투영된 수리구조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河圖의 수리구조상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陰陽五行의 문제와 더불어 하도와 낙서의 同異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면서 그 관계성에 주목한다. 팔괘생성론은 河圖와 八卦生成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이다.²⁾ 이른바 성인이 하도와 낙서를 본받았다는 구절에서 본받은 구체적 내용을 八卦의 성립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일생이에 의한 팔괘생성이론³⁾과 연관지어 논의되어왔다. 시책론은 河圖를 筮法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筮法의 모태인 50이라는 大衍之數를 河圖의 目數인 天地之數에 이어서 전개해놓은 것에 근거한다. 본고에서는 하도낙서를 중심으로 여현역학의 상수론적 기반을 살펴본다.

하도낙서에 관한 상수학적 관점의 본격적 논의는 『易學啓蒙』에서 주

1) 『周易』 「繫辭上傳, 제9장 ; 天一地二天三地四天五地六天七地八天九地十天數五地數五五位相得而各有合天數二十有五地數三十凡天地之數五十有五此所以成變化而行鬼神也

2) 『周易』 「繫辭上傳, 제11장 ;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3) 『周易』 「繫辭上傳, 제11장 ;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역 계사전의 천지지수론에 대해 河圖를 설명한 것으로⁴⁾ 천명하면서 부터이다. 이로부터 河圖의 진위여부와 형태, 河圖와 洛書의 관계, 河圖와 八卦, 洛書와 洪範의 연관성 등이 논의되었다. 旅軒의 하도낙서에 대해 언급한 저서들을⁵⁾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의 하도낙서에 대한 관점과 연구 성과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여현역학적 상수학적 기반의 대강을 짐작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전거인 『易學圖說』권3은 「巧著」편으로 되어 있고 딸린 항목이 《河圖洛書》뿐이다. 『易學圖說』권3에 등장하는 圖는 모두 50여 가지⁶⁾이다. 이 부분에서는 易의 象數이론에 대해서 연구한 중국의 여러 학자들⁷⁾의 說을 圖에 이어서 발취·인용해놓았으며 한국의 연구 성과로는 『易學啓蒙要解』와 李退溪의 설을 반영하고 있다. 여현이 위

- 4)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89쪽 : 此一節 夫子所以發明河圖之數也.
- 5) 대표적으로 『易學圖說』의 권3의 「巧著」의 河圖洛書 편, 『性理說』권1의 圖書發揮篇題, 『易學圖說』의 권6의 算數通於易之說圖와 그에 딸린算數편, 『性理說』권7의 理數分合 편, 圖書에 나타난 陰陽적 義理를 독창적으로 취합하고 추출한 『易學圖說』의 권9의 圖書餘義편, 卦와 관련하여 하도낙서의 이론을 접목한 易卦總說을 들 수 있다.
- 6) 『易學圖說』卷3 「巧著」, <河圖洛書>, 337쪽 이하 52가지 그림 참조.
 河圖, 天地數次序之圖, 天數地數奇乏偶贏之圖, 五位相得之圖, 五位有合之圖, 中五之圖, 十之圖, 五十相守之圖, 一二三四爲四象之位之圖, 九八七六爲四象之數之圖, 中五象五生數之圖, 生成陰陽迭居上下之圖, 一三五爲九九退爲七之圖, 二四爲六六進爲八之圖, 生數統成數之圖, 相連爲十之圖, 相連爲十五圖, 左旋相生之圖, 對待相克之圖, 老少陰陽互藏其宅之圖, 河圖可以爲洛書之圖, 虛其中之圖, 朱子以位數分卦之圖, 胡氏以互配分卦之圖, 韓氏排極儀象卦異同之圖, 四正得數四隅得位之圖, 析合補空之圖, 朱說數位分正隅黑白之圖, 洛書, 天地數次序止九之圖, 奇多偶少之圖, 中五圖, 書之八方之數與圖之四方之數同之圖, 中五象四方之圖, 位數虛中五各自成十之圖, 位數得中五各成十五之圖, 相對爲十統圖, 縱橫爲十五統圖, 奇數統偶數之圖, 九六七八反覆相連之圖, 九六七八迭爲消長各圖, 老少陰陽消長統圖, 右轉相克之圖, 對待相生之圖, 洛書可以爲河圖之圖, 虛其中之圖, 則洛書以作範圖, 洪範九疇圖, 圖書三同之圖, 圖書二異之圖, 先天八卦分居河洛之圖, 後天八卦合河洛之圖.
- 7) 孔安國, 劉歆, 關朗, 朱晦菴, 張南軒, 蔡西山, 黃勉齋, 劉雲莊, 翁思齊, 胡玉齋, 蔡節齋, 蔡九峯, 陳潛室, 董堯潤, 蔡覺軒, 陳希夷, 胡雙湖, 邵康節

도설을 해석하는 주요 개념인 체용 상변 경위에 관해 살펴본다.

II. 하도낙서와 체용론

여헌의 하도낙서와 관련된 체용론은 理數體用論과 河洛體用論으로 압축된다. 먼저 理數體用論은 ‘리가 체이고 수가 용이다’라는 의미인데, 수를 인식하는 틀 거리가 송대 이기론의 관점과 맞물려 있음을 의미한다. 數의 근본은 理이며 數는 理에서 나와 氣에서 行해짐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이다.⁸⁾ 수는 리에 근본한다는 원리적 차원과 기에서 행해진다는 현실적 차원을 포괄한다.⁹⁾

여헌은 원리적 차원의 수를 理中之數라 하고 현실적 차원의 수를 氣質形色之數라고 하여 체용적 관계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의 수를 인간의 인식능력과 관련하여 고찰하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인간의 인식 능력과 관련해 볼 때 만물은 모두 모두 氣質과 形色을 갖추고 理를 稟受한 존재이다. 이 氣質과 形色에 드러나는 數는 그렇게 드러나기 이전에 理의 차원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아 이를 理中之數라고 하였다. 그러나 理의 차원에 가능태로서 함유되어 있는 數는 目睹할 수 없으므로 氣質形色에 나타남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다.¹⁰⁾

8) 『易學圖說』卷6 「算數」, 371쪽 : 蓋數本於形而上之理 而行於形而下之氣 既有氣矣 則自不能無 分限節度 而數於是而形矣.

9) 신체를 예로 들면 五行의 이치와 五臟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 때 원리적 차원의 수란 오행의 수이며 현실적 차원의 수란 오장의 수이며 오장의 수가 오행의 수에 근거한다고 보는 방식이다.

10)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1쪽 ; 所謂數者著於氣質形色 而具於無氣質形色之前 則其前者所謂理也 此理之外能有數乎 但在理之數不可見也 而著於氣質形色然後方見其爲數 則因氣質形色之數 可以知理中之數矣 理固如此故在氣者如此 在質者如此 在形色者如此.

그런데 氣質形色을 통해서 理中之數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인간인식의 가능성과 한계성을 지목한다. 여헌은 인체기관인 耳目口鼻의 작용과 관련하여 數에 대한 인간인식을 예로 든다. 현실적 차원의 氣質과 形色에 數가 있다고 해서 그 수를 모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나 색깔뿐만 아니라 듣는 소리와 맡는 냄새와 먹는 맛에도 數가 있지 않음이 없다 하더라도, 모습이나 색깔과는 달리 귀로 듣는 소리와 코로 맡는 냄새와 입으로 느끼는 맛은 마음으로 神에 통한 자가 아니면 그 數를 살필 수 없다고 한다.

여헌은 數를 氣의 分限과 節度라고 정의하였다. 數가 分限節度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萬物의 始終 先後 等級 次第 등의 시간적 순서나 공간적 구별은 數를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이다.¹¹⁾ 눈에 보이는 오색 뿐 아니라 오미나 오음 등도 이러한 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의미이다.¹²⁾

여헌은 눈에 보이는 五形이나 오색 뿐 아니라 오미나 오음 등 이 지니는 원리적 차원의 수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 하도낙서라고 보았다.¹³⁾ 變化의 妙와 鬼神의 用을 밝게 드러낸 至妙한 自然之物이 河圖洛書라고 보아 매우 信奉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11) 『旅軒先生全書』下, 「性理說」 권1 <圖書發揮篇題> 1면 ; 象爲之別故於是乎有數焉 可以爲始終先後等級次第之序也.

12) 일상에서 오색이 지니는 명도를 수치화하는 것에 비해 오음의 음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13)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1쪽 ; 豈但形色乎哉 聽之爲聲嗅之爲臭食之爲味者 莫不有是數 而惟其在聲與臭味之數 則非心通於神者 不可得以察焉 而著於形色者然後皆可得以及此者 凡於天地之間 有聲者有臭者有味者 孰非此數之所在 而非至神至聖之聰明有不得以及此者 故古之聖人特因其恒人所可共見者 而表章其數焉 此河圖爲伏羲之所取洛書爲大禹之所取於是 而畫卦於是 而叙疇 則可以畫卦 可以叙疇者 何必河圖何必洛書哉 但具得此數而爲物者 他物 則形色之常有者而已 唯馬之出於河者 龜之出於洛者 既具常形之外復有所負之圖書.

“河圖의 55와 洛書의 45는 太極가운데 갖추어진 數가 아님이 없다. 陰陽이 陰陽이 되는 소이도 이 數로써 다한다. 하늘이 하늘이 됨도 이 數이고 땅이 땅이 됨도 이 數이며 사람이 사람이 됨도 이 數이다. 日月星辰도 이 數가 아니면 象이 될 수 없고, 水火土石도 이 數가 아니면 質이 될 수 없고, 春夏秋冬도 이 數가 아니면 時가 될 수 없고, 東西南北도 이 數가 아니면 方이 될 수 없고, 元亨利貞도 이 數가 아니면 德이 될 수 없고, 仁義禮智도 이 數가 아니면 性이 될 수 없고, 五臟六腑도 이 數가 아니면 具가 될 수 없고, 耳目口鼻와 四肢百骸도 이 數가 아니면 體가 될 수 없고, 元會運世나 歲月日辰도 이 數가 아니면 行할 수 없고, 一虫一魚나 一草一木도 이 數가 아니면 이러한 物이 있을 수 없다. 무릇 造化 가운데 精粗, 隱顯, 微著, 巨細한 모든 것이 이 數 밖에 있을 수 없다.”¹⁴⁾

인용문에 따르면 河圖洛書의 數는 이미 太極에 잠재태로 내재되어 있는 數로 形而上的으로 事物에 先行하는 원리적 존재이다. 또한 현실 세계의 事物 뿐 아니라 인간의 心性조차 모두 河圖洛書의 自己整合的 수리체계에 포섭된다.

하도낙서에 사물의 보편적 원리가 내재해있다고 할 때 그 보편적 원리란 바로 음양오행론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하도에서 老陽位가 老陰數 안에 거하고 老陰位가 老陽數안에 거하며, 少陽位가 少陰數 안에 거하며 少陰位가 少陽數안에 거하는 것을 『역학계몽』에서는 ‘陰陽互藏其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하도의 수리체계에서 음양이 互爲其根의 원리를 적출한 것이다. 여현은 이에 근거하여 ‘음양호장기택’을 정확히 거꾸로 뒤집어서 老陰數가 老陽位의 밖에 자리하고, 老陽數가 老陰位의 밖에 자리하고, 少陽數가 少陰

14)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2쪽 ; 圖之五十五書之四十五 無非太極中所具之數也 陰陽之所以爲陰陽者 此數而盡矣 天之爲天者此數 地之爲地者此數也 人之爲人物之爲物者此數也 日月星辰非此數則不象 水火土石非此數 則不質 春夏秋冬非此數 則不時 東西南北非此數 則不方 元亨利貞非此數 則不德 仁義禮智非此數 則不性 五臟六腑非此數 則不具 耳目口鼻 四肢百骸 非此數 則不體 至於元會運世 歲月日辰 非此數 則不行 一虫一魚 一草一木非此數 則無是物 凡在造化中爲精粗爲隱顯爲微著爲巨細者 其有外於此數者乎.

位の 밖에 자리하고, 少陰數가 少陽位의 밖에 자리하는 것을 相生相濟의 뜻으로 정의하여 자신의 철학개념으로 삼고 있다.¹⁵⁾ 이처럼 旅軒에게 河圖洛書는 사물의 보편적 이치를 개발해주는 일종의 認識과정의 매개체로 자연과 인간 존재에 대한 사유의 상수론적 핵심기반으로 여기고 있다.

여헌의 하도낙서와 관련한 체용론으로 理數體用論과 더불어 河洛體用論이 있다. 물론 하도 낙서의 體用에 관한 논의는 『易學啓蒙』에서 시작된 이래 圖書에 다양한 개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 하도낙서의 體用論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은 動靜, 常變, 奇偶, 生成, 圓方, 同異등이다. 旅軒은 하도와 낙서를 체용관계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 개념으로 풀고 있다.

‘河圖는 生成으로 同方이고, 洛書는 奇偶로 異處인 것이 體用의 뜻이다’¹⁷⁾

하도는 생수와 성수가 내외로 동일한 곳에 처해있다. 낙서는 기수와 우수가 正間으로 다른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하도의 生成·同方을 體로 낙서의 奇偶·異處를 用으로 정의한 것은 그가 체용개념을 河圖洛書에 적용할 때 先後의 의미에 착안하였다고 생각된다.¹⁸⁾ 數는 먼저 同方에서

15) 『旅軒先生全書』下 「圖書發揮篇題」 6쪽 ; 其故何歟 蓋陰陽位數之分居者 位是陰陽之大分 故居四方之內焉 數是陰陽之成功 故居四方之外焉 至於老陽位之居於老陰數之內 老陰位之居於老陽數之內 少陽位之居於少陰數之內 少陰位之居於少陽數之內者 朱晦翁所謂陰陽互藏其宅者是也 若老陰數之居於老陽位之外 老陽數之居於老陰位之外 少陽數之居於少陰位之外 少陰數之居於少陽位之外者 亦皆相生相濟之義也.

16) 河洛體用論에 관해서 자세 한 것은 拙稿 『退溪의 啓蒙傳疑에 관한 研究』 1997, 성대석사학위논문 참조바람.

17)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圖則生成同方 書則奇偶異處者 體用之義.

18) 여기에서의 先後는 역사적으로 하도가 낙서에 선재한다는 시간적 의미 이외에도 圖書의 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수리적인 측면에서 선후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개념을 포함한다.

生成된 數의 體가 있어야 異處에서 奇偶의 用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先體後用의 해석의 가능성은 그가 體用에 관한 의미를 피력하는¹⁹⁾ 가운데에서도 나타난다.

Ⅲ. 하도낙서와 상변론

旅軒은 體用과 별도로 河圖와 洛書를 常變의 측면에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朱子의 圖書體用論과 동이가 있다. 먼저 『易學啓蒙』의 다음 문답을²⁰⁾ 살펴보자.

문: 하도와 낙서의 位와 數가 다른 것은 어째서인가?

답: 하도는 다섯 생수로 다섯 성수를 거느리면서 같은 방위에 처하니, 대개 그 소을 들어 사람에게 보여 그 常을 말하니 數의 體이다. 洛書는 다섯 기수로 네 우수를 거느리며 각각 다른 장소에 거하니, 대개 陽으로 主를 삼아 陰을 거느려 그 變을 피하니 數의 用이다.

『易學啓蒙』에서는 하도와 낙서의 體用관계에 대해 위와 같이 언급함으로써 이른바 圖書體用論에 불을 지폈다. 심지어 劉雲莊은 이와는 정 반대로 質과 氣의 對待와 流行개념을 사용하여 洛書를 體로 河圖를 用으로²¹⁾

19) 『旅軒先生全書』下 「體用分合」, 162쪽 ; 體者形體之體也 用者功用之用也 凡物有形體然後有功用 若無其形體先具焉 其功用何從而出乎.

20)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 994-995쪽, 「本圖書」; 或曰 河圖洛書之位與數 其所以不同何也 曰 河圖以五生數統五成數 而同處其方 蓋揭其全以示人 而道其常數之體也 洛書以五奇數統四偶數 而各居其所 蓋主於陽以統陰 而肇其變數之用也.

21)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96쪽, 雲莊劉氏註 / 『易學圖說』卷之三 「巧著」, <河圖洛書>; (雲莊劉氏曰)河圖者陰陽生成之合 洛書者陰陽奇偶之分 以質而論 則分而各居其所 是對待之定體也 以氣而論 則合而同處其方 是流行之妙用也 然氣質二者 初不相

구분하였으며 이 점은 退溪도 지적한 바 있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朱子는 生成과 奇偶, 同方과 異處, 常과 變을 통틀어 체용개념으로 포괄하였다. 이 부분에서의 ‘생성동방과 기우이치’는 위에서 여현이 하락의 체용을 정의할 때 사용한 개념이다. 다른 것은 ‘생성동방과 기우이치’가 상변의 개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旅軒은 이 가운데 常變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의한다.

‘河圖는 偶數가 남고 奇數가 모자라며 洛書는 奇數가 남고 偶數가 모자람이 常變의 뜻이다’²²⁾

이것은 하락상변에 대한 여현의 독창적 정의이다. 旅軒은 河圖의 生成·同方과 낙서의 奇偶·異處의 뜻만을 體用관계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常·變은 별도의 의미로 구성한 것이다. 『圖書發揮篇題』에서도 體用과 常變을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²³⁾ 구체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偶數가 남고 奇數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도는 짝수의 합이 30이고 홀수의 합이 25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奇數가 남고 偶數가 부족하다’는 것은 낙서는 홀수의 합이 25이고 짝수의 합이 20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완벽한 짝을 이룬 균형상태인 짝수를 ‘常’으로, 짝을 이미 이룬 나머지가 아직 이루지 못한 나머지(奇)인 홀수를 ‘變’으로

離 有分 則必有合 有合 則必有分 不可以拘泥 而觀之也 / 劉雲莊.

22)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0쪽; 圖則偶贏奇乏 書則奇贏偶乏者 常變之義.

23) 『旅軒先生全書』下 「圖書發揮篇題, 8쪽; 圖之有十書之欠十者 圖常書變 圖體書用之義 晦翁 已言之已.

이해해볼 때, 하도는 常으로서의 變을 간직하고 있고, 낙서는 變으로서의 常을 내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山澤損卦 六三爻²⁴⁾에 대해 「계사전」에서 밝히고 있듯이 男女가 交合하여 인류가 끊임없이 생육하고 변화하는 것은 ‘男女’로 변하지 않는 常으로서의 짝수와 더불어 ‘三人行과 一人行’이라는 홀수(나머지)의 기여로 볼 수 있다.²⁵⁾ 이처럼 훌쩍의 논리로 볼 때 전체적으로 하도는 10수이기에 常으로 규정하고 낙서는 9수이기에 變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해 河圖와 洛書의 常變論에 대한 胡玉齊의 설을 살펴보자.

“하도의 수는 10인데 10은 對待로써 그 體를 세운 것이므로 常이다. 낙서의 수는 9인데 9는 流行으로써 그 用을 이룬 것이므로 變이다. 常變의 說은 朱子가 단지 각각 그 重點을 들어 말한 것일 뿐 하도가 오로지 常으로 體가 되어 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낙서가 오로지 變으로 用이 되어 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²⁶⁾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胡玉齊는 對待와 流行의 體用論理로 常變을 풀어가고 있다. 이것은 주자의 河洛體用常變論에 註脚을 단 것이지만 旅軒은 이 가운데 對待와 流行을 偶數와 奇數의 不動과 迭運의 개념²⁷⁾으로 이해하여 常變을 추출한 듯하다.

24) 『周易』損卦 六三爻: 三人行則損一人 一人行則得其友.

25) 『주역』의 하경 첫머리인 咸卦의 4호에서 남녀가 교감하여 아이를 잉태해서 60호 10괘가 지난 損卦 3호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짝을 만나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인류라는 종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산주역강의』손괘 3호 해설 참조.

26)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第一」, 997쪽 : 玉齊胡氏曰...河圖數十 十者對待以立其體 故爲常 洛書數九 九者流行以致其用 故爲之變也 常變之說 朱子特各去所重者爲言 非謂河圖傳於常有體而無用 洛書傳於變有用而無體.

27) 위와 같은 곳: 陰之老少不動 而陽之老少迭運 此主其變也.

이러한 常變의 논리는 縱橫의 논리와 결합하여 여현이 經緯說을 제창하게 되는 중요한 골자가 된다. 旅軒은 자신이 제창한 經緯說을 파악하는 핵심 골자가 縱橫과 常變임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

“經緯의 뜻은 반드시 活認해야 하며 布帛의 經緯라는 形質에 집착해서 理氣의 經緯를 구하려고 해서 안 된다. 단지 縱橫과 常變의 뜻을 취해서 만사만물에 미룬다면 서로 따르고 서로 갖추는 妙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²⁸⁾

위의 인용문은 자신이 날줄(經)과 씨줄(緯)에서 ‘借物明理’한 經緯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히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經緯가 지니는 의미의 핵심이 常變과 縱橫이다’라고 할 때의 常變·縱橫은 易學的象數論에 근거한다. 다음 구절을 살펴보자.

“易은 數의 근원이며 算法의 유래는 數를 인하여 지어졌다. 10을 쓰는 것이 常이 됨은 河圖의 수이다. 9를 쓰는 것이 變이 됨은 洛書의 수이다. 10이 버리가 되어 총괄하면 宇宙 사이의 事物의 類가 비록 무궁하지만 모두 새어나갈 수 없다. 9가 變이 되어 미루면 우주간 事物의 變이 비록 無盡하나 달아날 수 없다. 縱이 되는 소이는 易의 奇에서 취한 것이며 橫이 되는 所以는 易의 偶에서 취한 것이다.”²⁹⁾

위 부분은 算子(계산도구)의 상징적 의미를 말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28) 『旅軒先生全書』下, 「論理氣爲經緯」, 81쪽 ; 又曰經緯之義要須活認得 不可泥從布帛之經緯上執定形質 以求之於理氣之經緯也 只取一縱一橫 一常一變之義 推之於萬事萬物 則可以得其相須相備之妙矣.

29) 『易學圖說』권6, 371쪽 ; 易者數之原而算之生因數而作也 用十爲常者即河圖之數也 用九爲變者即洛書之數也 以十爲紀而總之 宇宙間事物之類 雖無窮都莫得而漏焉 以九爲變而推之 宇宙間事物之變 雖無盡亦莫得而遁焉 其所以縱之者 取法於易之奇乎 橫之者取法於易之偶乎.

常變과 縱橫을 河圖洛書의 數와 易의 奇偶二畫象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經緯의 상징적 모델이 된다.

IV. 하도낙서와 경위표리론

河圖와 洛書에 대해 經緯의 관계라고 최초로 표명한 劉歆은 河圖洛書를 상호 經緯관계로 八卦九章을 상호 表裏관계로 언명하였을 뿐³⁰⁾ 구체적으로 經緯나 表裏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陳潛室은 經緯를 현상계의 上下와 左右의 縱橫이 아닌 正變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서로 正變의 관계가 될 수 있는 要旨로 圖書의 數가 비록 縱橫으로 변동하지만 결국 太極의 一理가 陰陽五行의 관계로 펼쳐지는 과정에서 하도낙서에 서로 뒤섞여서 未見됨을 말한 것으로 보았다.³¹⁾ 表裏 또한 복희씨가 하도를 근거해서 팔괘를 그렸고 夏禹氏가 洛書를 근거로 九疇를 밝혔으나 팔괘로 表章한 裏面에 九疇의 이치가 들어 있고 九疇로 表章한 이면에 八卦의 이치가 들어 있어 서로 표리가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³²⁾

旅軒은 河圖와 洛書를 經緯表裏의 관계로도 설정하여 그 구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30)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82쪽 ; 劉歆云 伏羲氏繼天而王 受河圖而畫之 八卦是也 禹治洪水 賜洛書法而陳之 九疇是也 河圖洛書相爲經緯 八卦九章相爲表裏.

31)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82-983쪽 : 劉歆云以下; 潛室陳氏曰 經緯之說 非是以上下爲經左右爲緯 大抵經言其正緯言其變 而二圖互爲正變 主河圖而言 則河圖爲正而洛書爲變 主洛書而言 則洛書爲正而河圖又爲變 要之天地間 不過一陰一陽 以兩其五行 而太極常居其中 二圖雖縱橫變動 要只只是參互呈見.

32)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 983쪽, 「本圖書」 潛室陳氏註後段; 伏羲但據河圖而畫卦 大禹但據洛書而明疇 要之 伏羲之畫卦其表爲八卦 而其裏固可以爲疇 大禹之敘疇其表爲九疇 而其裏固可以爲卦 此所以謂之相爲表裏也.

“河圖는 圓으로 10수이며 洛書는 方으로 9인 것이 經緯表裏의 의미이다.”³³⁾

이것은 하도 낙서에 내재된 특징의 一面을 언급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도 낙서의 象數에 陰陽五行이 渾全된 象에³⁴⁾ 대한 관점을 총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는 劉牧의 ‘9가 하도이고 10이 낙서이다’라는³⁵⁾ 것과 같은 異說에 반대함과 동시에 邵康節의 ‘하도는 그 수가 10이며 낙서는 그 수가 9이다’라는³⁶⁾ 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旅軒은 하도를 圓의 형상으로 낙서를 方의 형상으로 받아들였다. 이 또한 邵康節이 天地四象論에 입각해서 하도와 낙서를 星圓土方으로 본 관점³⁷⁾을 수용한 것이다.

『易學圖說』 권3에 등장하는 52가지 圖 가운데 하도와 낙서에 대해 각각 서두에 언급하고 있는 다음 圖解의 설을 살펴보자

“복희씨가 천하에 왕이었을 때 용마가 河에서 지고 나온 그림이다. 7이 앞에 6이 뒤에 8이 좌에 9가 우에 있다. 말 등에 있는 55개의 點의 旋毛(나선 모양의 털)의 권역이 星象과 같음이 있어서 圖라 하였다. 天에 通하는 것은 河(銀河)이다. 성인의 덕이 위로 하늘과 짝하므로 하늘이 그 상서로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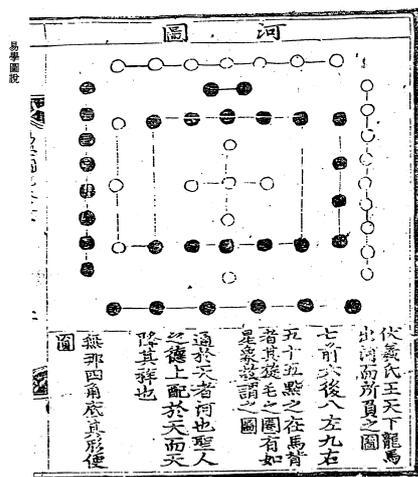
33) 《性理大全》卷14,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0쪽 ; 圖則圓而十 書則方而九者 經緯表裏之義.

34) 《性理大全》卷14, 『易學圖說』卷9 「圖書餘義」, 590쪽 ; 圖書有渾全之象.

35)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84쪽 ; 惟劉牧臆見 以九爲河圖十爲洛書 託言出於希夷 既與諸儒舊說不合.

36) 《性理大全》卷14, 『易學啓蒙』「本圖書」, 984쪽 ; 關子明 邵康節 皆以十爲河圖 九爲洛書.

37) 《性理大全》卷11, 『皇極經世書』 觀物外篇, 837쪽, 『易學啓蒙』「本圖書」, 『易學圖說』卷之三 「巧著」, 《河圖洛書》 20면; (邵子曰) 圓者星也 曆紀之數其肇於此乎 方者土也 畫州井地之法其倣於此乎 蓋圓者河圖之數 方者洛書之文 故義文因之而造易 禹箕敘之而作範也.



내려주었다. 四角이 없어 그 形이 圓이다.” 38)

“大禹가 治水할 때 神龜가 文을 지고 나왔는데 등에 배열된 것이 이것이다. 9가 앞이고 1이 뒤이며 좌가 3이고 우가 7이며 4가 전좌이고 2가 전우이며 8이 후좌이며 6이 후우이다. 거북 등에 있는 45개의 點의 碇인 文양(折文)이 字畫(글자의 획)과 같아서 書라 하였다. 地에 가운데 한 것이 洛(洛水)이다. 성인의 덕이 아래로 땅에 미치니 땅이 그 상서로움을 드러

낸 것이다. 四角이 있어 그 形이 方이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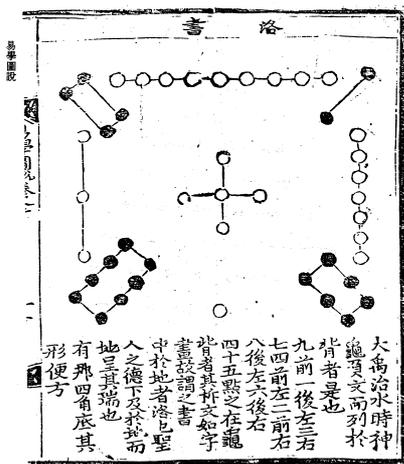
위 언급은 張南軒과 40) 蔡西山의 41) 견해를 선택적으로 취하여 자신의 圖解로 삼은 것인데 그 說에서 보이듯이 河圖가 圓의 형상이고 洛書가 方의 형상으로 그 수가 10과 9라는 것은 단순히 그 모습에 대한 관점만이 아니다.

38) 『易學圖說』卷3 「巧著」, 《河圖洛書》 339쪽 : 河圖, 伏羲氏王天下龍馬出河 而所負之圖 七前六後八左九右 五十五點之在馬者 其旋毛之圈 有如星象 故謂之圖 通於天者河也 聖人之德上配於天 而天降其祥也 無那四角底其形便圓.

39) 『易學圖說』卷3 「巧著」, 《河圖洛書》 10면, 洛書; 大禹治水時 神龜負文 而列於背者是也 九前一後左三右七四前左二前右八後左六後右 四十五點之在龜背者 其折文如字畫故謂之書 中於地者洛也 聖人之德下及於地 而地呈其瑞也 有四角底其形便方.

40) 『易學圖說』卷3 「巧著」, 《河圖洛書》 23면; 通於天者河也 聖人之德上配於天 而天降其祥也 中於地者洛也 聖人之德下及於地 而地呈其瑞也 /張南軒.

41) 『易學圖說』卷3 「巧著」, 《河圖洛書》 23면; 河圖自一至十 五十五點之在馬者 其旋毛之圈 有如星象 故謂之圖 洛書自一至九 四十五點之在龜背者 其折文如字畫故謂之書 /蔡西山.



이것은 곧 邵康節이 전개한 天地四象說의 圖書의 수용이다. 하늘의 日月星辰 가운데 星은 그 모습이 둥글다. 땅의 水火土石 가운데 땅에 해당하는 土은 方德을 사용한다. 이처럼 하도낙서는 하늘에 있는 별의 둥근 圓과 땅에 있는 땅의 모난 象과 더불어 10과 9라는 數로 구성된 物이다. 결국 河圖洛書에 天地間 陰陽五行의 이치가 渾全되어 있다는 圖書에 대한 統合

의이고 總體的 觀點에서의 언급이 바로 經緯表裏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栗谷도 그의 『易數策』에서 河圖洛書와 八卦九疇가 서로 經緯表裏가 됨에 대해 前後一揆 古今一致라 하여⁴²⁾ 그 不離的 關係와 相卽性을 피력하였다. 易學思想과의 관련선상에서 해석해 볼 때, 圖書上에서 전개된 旅軒의 經緯論은 앞서 언급한 ‘體用’이나 ‘常變’에 비해 하도와 낙서의 통합적이고 一物的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旅軒에게 보이는 經緯一物的 사유의 상수론적 근거라 고 할 수 있다. 동시에 易學史에서 상수론에 관하여 여현이 邵康節의 易學을 중요하게 여겨 계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42) 『栗谷全書』卷14, 雜著1, 「易數策」: 河圖洛書相爲經緯 八卦九疇相爲表裏 前後一揆 古今一致.

V. 결론

이상에서 여헌 역학의 상수론적 기반 가운데 하도낙서에 국한하여 살펴 보았다. 이상에서 추출한 체용 상변 경위 등의 개념이 실제 그의 다른 저서에 어떻게 용해되어 사용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본고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다.

旅軒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호인 여헌이 지니는 철학적 의미를 밝히는 「旅軒說」에서 旅를 無常(變)으로 軒을 常으로 규정하여 常과 變의 論理로 설명하였다.⁴³⁾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냄에 있어 火山旅卦의 象에서 취해 常變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의 상변 개념을 추출한 상수학적 기반이 바로 하도낙서이기도 하다.

상변의 논리는 자호 뿐 아니라 그의 우주론이나 이기론 등에 광범위하게 녹아있는 개념이다. 여헌은 그의 우주론이나 심성론 등의 이론전개를 함에 있어 하도낙서와 같은 도상에서 추출된 體用, 常變, 經緯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다.⁴⁴⁾

리수체용론에서 읽을 수 있듯이 여헌에게 있어 河圖와 洛書는 사물의 음양적 원리를 인식하는 방법론적 매개체이다. 또한 하도와 낙서의 관계에서 추출된 개념이 그의 세계관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도낙서는 여헌역학 내지 여헌철학의 주요한 상수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43) 『旅軒先生全書』上, 「旅軒說」, 135-140쪽 참조.

44) 이와 관련한 내용은 拙稿 『여헌 장현광 역학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균관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6.)참조바람.

45) 물론 이상의 주요 개념들이 하도낙서에서 탄생된 개념들은 아니며, 기반이라 할 때 그 시간적 선후상의 근거를 의미하진 않는다. 다만 논리적으로 역학에서 상수와 의리의 연관관계를 논할 때 의리가 상수에서 파생되는 측면을 지지할 때 상수

【참고문헌】

- 張顯光, 『旅軒先生全書』上, 下, 旅軒學研究會
張顯光, 『易學圖說』乾, 坤, 여현학연구회; 학민문화사 2007.
朱熹, 『易學啓蒙』, 《性理大全書》卷14-卷24
邵康節, 『皇極經世書』, 《性理大全書》卷7-卷13
李珥, 『栗谷全書』
崔廷準, 『旅軒 張顯光 易學思想의 哲學的 探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06.
崔廷準, 『退溪의 啓蒙傳疑에 關한 研究』,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98.
『周易傳義大全』, 학민문화사
金碩鎭, 『大山周易講義』, 한길사, 1999.

가 의리를 추출할 수 있는 기반 내지 근거가 된다는 의미이다.

中文摘要

旅軒張顯光的易學觀

- 關於河圖洛書的認識 -

崔廷準

旅軒通過他自己的見解來闡明了象數易學的主要主題，即河圖與洛書的關係。我們在他重要著書《易學圖說》的考察，可以看到其獨創的定義。

旅軒把〈河圖〉規定為體，把〈洛書〉規定為用，並且對河圖洛書的關係認為先體後用的原理。關於河圖洛書的常變原理，旅軒把〈河圖〉的偶贏奇乏規定為常，把〈洛書〉的奇贏偶乏規定為變；關於河圖洛書的經緯原理，旅軒把〈河圖〉的圓而十規定為經，把〈洛書〉的方而九規定為緯。

在象數易學中抽象化的 體用，常變，經緯等概念 可以說闡明他的義理思想體系的基礎。

關鍵詞

周易，象數易學，旅軒，體用，常變，經緯

▪ 논문투고일 : 2011.6.21 심사완료일 : 2011.8.1 게재결정일 : 2011.8.5